신 · 재생 에너지 수입의존도 지나치게 높아

국내 신 · 재생 에너지 매출이 GDP의 0.2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육성대책이 특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.

에너지경제연구원은 <주요국 신재생에너지 정책동향>에서 " 국내 신 · 재생 에너지 매출은 2009년 4조275억원으로 GDP의 0.2%, 세계시장 점유율은 1.4%에 불과하다 "고 발표했다.

또 "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 등 주요 분야에서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이 50-85%에 머물고 있다 "며 " 수입의존도 또한 태양광 75%, 풍력 99.6%로 매우 높다 "고 발표했다.

국내 신 · 재생 에너지산업의 문제점으로는 전반적인 기술 및 가격경쟁력이 취약하고,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분야의 국산화가 미흡한 점을 꼽았다.

체계적인 연구개발(R&D) 전략도 부재하고, 국제표준화 활동이 부족해 선진국의 산업구조를 뒤늦게 쫓아가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.

에너지경제연구원은 신 · 재생 에너지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" 특화분야별 선도기업 육성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"며 " 태양광분야에서는 차세대 핵심 태양전지를 중점 육성하고, 풍력에서는 전력기업 및 공기업의 지분투자를 통해 국산 풍력발전기 보급을 확대하고 인수합병(M&A)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"고 조언했다.

이와 함께 "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R&D를 강화하고,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고용친화적 R&D를 유도해야 한다 "며 " 해외 진출기업에는 금융 및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"고 주장했다.

아울러 아시아 · 태평양 신 · 재생 에너지 국제표준화 협력체를 창설해 유럽과 미국 중심의 국제표준화 추세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.

정부는 태양광과 풍력, 수소연료전지 등 9대 분야에 2012년까지 모두 3조원을 지원하는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2008년 9월 발표하고, 신 · 재생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10/8/23>